

뮤직어스

제6호

2025년 6월



시아샘음악교육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상상할 수 있나요?

최근에 본 영화가 있나요?

있다면 영화를 볼 때 대사를 듣거나 노래를 들었나요?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오늘날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 처음 영화가 생겨났을 때에는 대화 없이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으로만 내용이 전달되었어요. 따라서 영화 내에서 음악 또한 절대 들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대사 대신 자막으로, 영화 내에 삽입된 음악 대신 라이브로 연주되는 작은 밴드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무성 영화라고 불렀어요.

1927년 <재즈 싱어> 라는 영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사람의 목소리와 노랫 소리가 처음으로 영화에 들어간 작품이었거든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발전한 것이지요.

이렇게 영화가 발전해 오면서 영화와 음악은 절대 떼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영화의 장면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즐거운 장면에서는 신나는 음악, 슬픈 장면에서는 느리고 잔잔한 음악, 무서운 장면에는 무섭고 긴장되는 음악이 알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영화 음악도 많아요. 영화를 제작할 때 음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랍니다!



영화 음악 중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출처) Disneymusic

클래식 작곡가는 왜 머리스타일이 다 똑같은까?



위에 있는 클래식 작곡가들 머리 스타일을 보니 어떨까요? 그들의 초상화 속 머리 모양을 잘 보면 모두 비슷한 파마머리를 하고 있어요.

"왜 작곡가들은 다 파마머리를 했을까요?"

사실 그건 파마가 아니라 가발이에요.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유럽에서는 귀족이나 왕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멋을 내기 위해 가발을 썼어요. 귀족들을 상대로 궁정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던 음악가들은 자연스럽게 가발 문화를 접하게 되었죠.

물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가발을 쓰지 않는 클래식 작곡가들도 있어요. 베토벤이 그 예시인데요. 베토벤은 어디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활동을 하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가발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뽐낼 수 있었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rit.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a tempo

(아 템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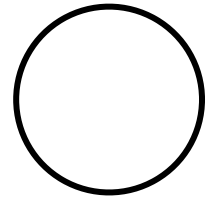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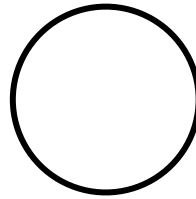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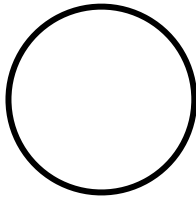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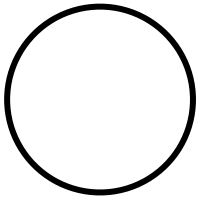
원래 빠르기로

accel.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표정을 완성시켜보세요!



각 QR 코드의 음악을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표정을 완성해주세요.

내가 만드는 영화 음악

<각 이미지에 어떤 음악이 어울릴지 적어보세요.>



Tip! 가족들과 생일파티했던게 떠올라서 빠르고 엄청 화려하게 연주되는 음악을 만들어보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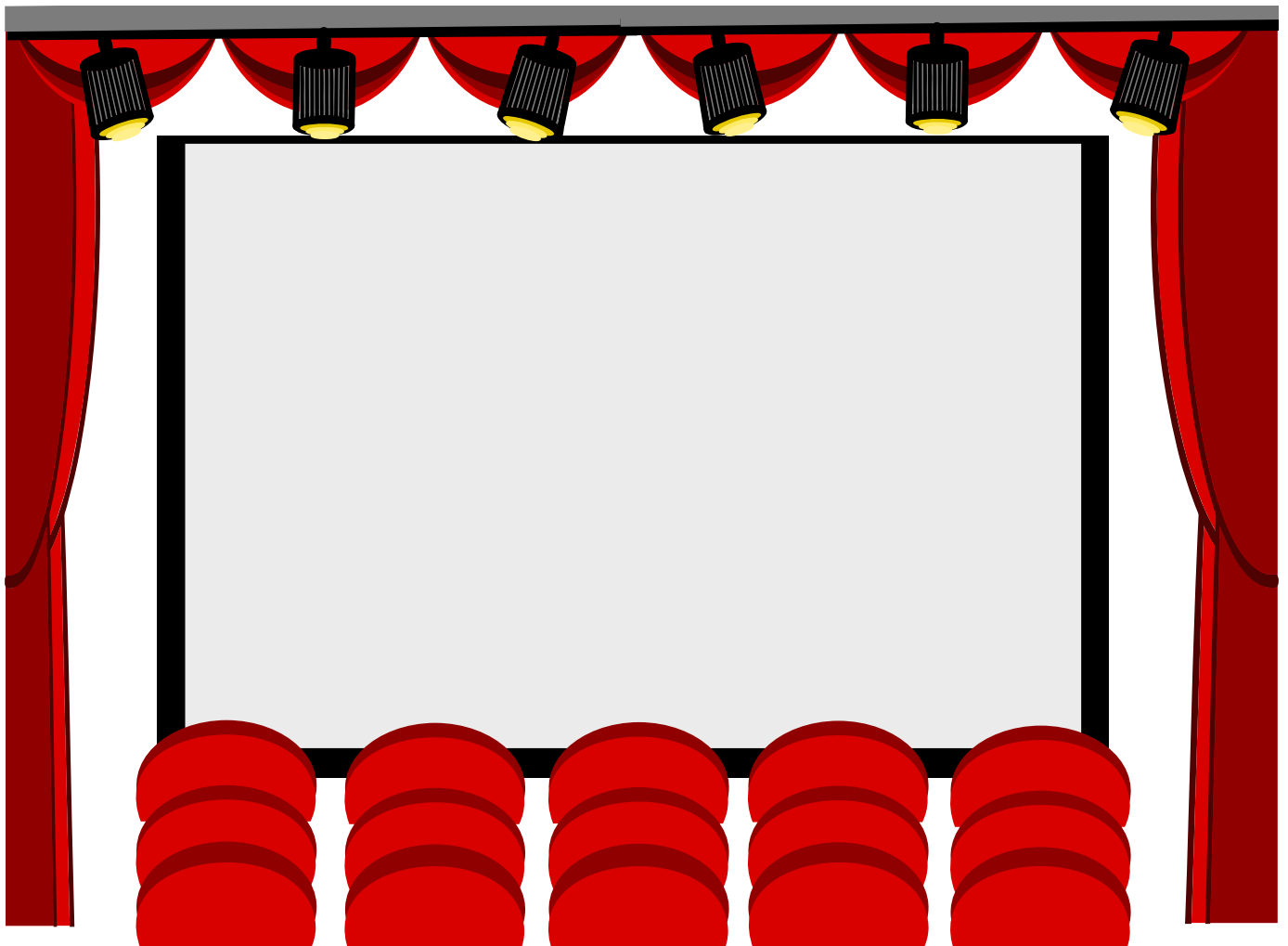


영화 음악의 발전



무성 영화 시대에는 카메라로 영상은 찍을 수 있었지만,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인데, 당시엔 이 진동을 기계에 담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후 과학자들이 소리를 필름에 담는 기술을 개발하여
유성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을 그려보세요.



작곡가의 얼굴을 완성해주세요

작곡가 1 (베토벤)의 사진을
해당 칸 안에
오려 붙여 초상화를 완성 시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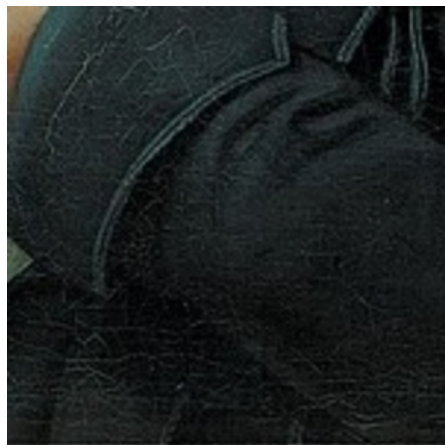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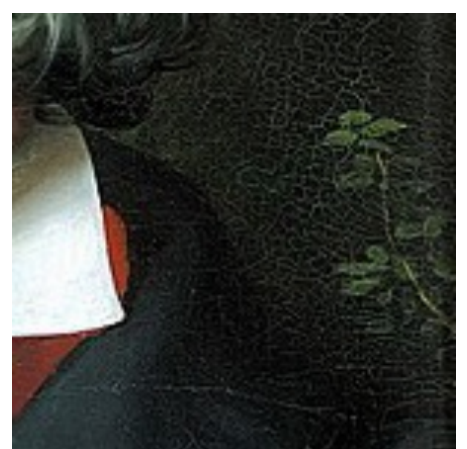
작곡가의 얼굴을 완성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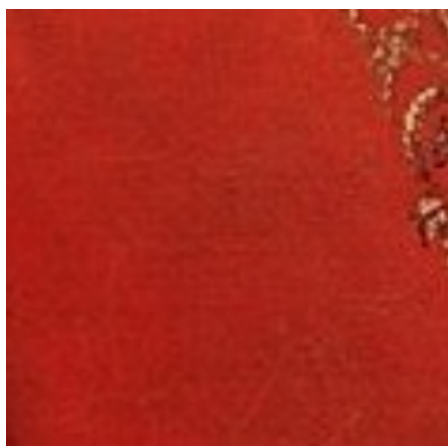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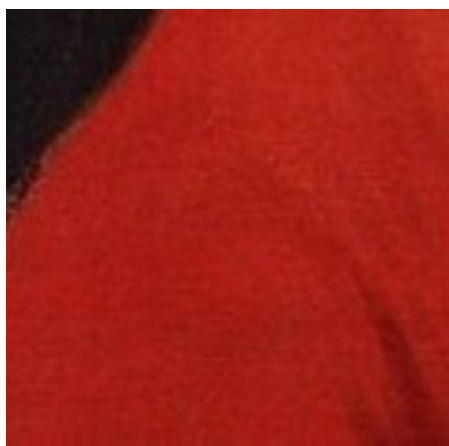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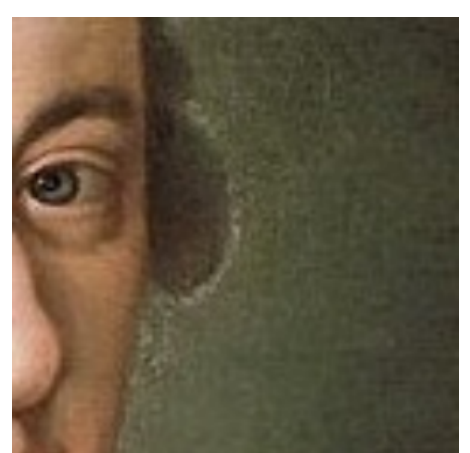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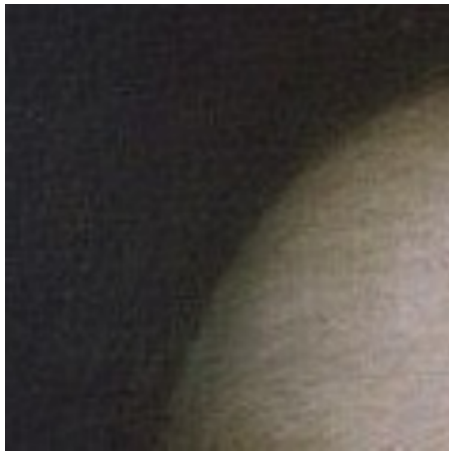
작곡가 2 (모차르트)의 사진을
해당 칸 안에
오려 붙여 초상화를 완성 시켜주세요.

활동 3

작곡가 1 (베토벤)

시아샘음악교육





음악에서 나타나는 빠르기말

〈각 빠르기말을 따라해보세요〉

rit.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a
tempo*

아 템포
원래 빠르기로

accel.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